

9부능선 넘은 DGB의 하이증권 인수, '고용안정' 막판 변수

DGB금융, 임금피크제 도입 요구 성과평가·구조조정 연계 제안도

하이증권 "고용안정 보장" 투쟁 협약 거부땀 매각반대 등 불사

오늘 금융위서 자회사 편입 심사



11일 서울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하이투자증권 지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DGB금융의하이투자증권인수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하이투자증권 노조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투쟁에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용안정 협약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히면서 DGB금융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하이투자증권 지부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GB금융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협상을 계속 주장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매각반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형래 하이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DGB금융이 5년 동안의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

정 협약서에 아직까지 도장을 안 찍고 있다"며 "오히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DGB금융이 요구한 조건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실적이 미진한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또 협약체결 시점을 임시주주총회가 끝나고 인수절차가 다 마무리된 이후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노조 측은 지난 10일 DGB금융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고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DGB금융은 10일 저녁 노조측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밤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DGB금융은 "임금피크제는 차후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협약과 별개로 리테일부 구조조정안은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3번의 사명변경과 매각 과정을 거치며 대량 구조조정 등 고통만 강요받은 직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각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를 4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년간 금융당국 심사를 받아왔다.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말 인수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채용 비리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주주적격성'이 발목을 잡아왔다.

이후 DGB금융은 신임 김태오 회장을 선임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고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하며 금융당국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GB금융은 1년 여만에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DGB금융 자회사 편입 심사안이 통과되면 인수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노사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 상태. 게다가 하이투자증권 노조측은 12일 금융위 앞에서 지주사 편입에 반대하는 집회와 오는 3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생명, कै피탈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됐다. 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게 지주 측 입장"이라면서 "시일 안에 만족할만한 답은 내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하이투자증권 노조측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지방 금융 최초로 은행과 증권, 보험을 모두 갖춘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게 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KB금융, 세종시 첫 WM복합점포 신설

KB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세종시 한누리대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세종청사지점에 KB증권 '세종라운지'를 신설해 은행·증권 복합점포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WM)복합점포를 총 58개로 확대했다. 김은태 KB 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영업그룹 대표(왼쪽 첫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세종시 한누리대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세종청사지점에 KB증권 '세종라운지'를 신설해 은행·증권 복합점포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WM)복합점포를 총 58개로 확대했다. 김은태 KB 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영업그룹 대표(왼쪽 첫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그룹

조용병 "GMS 통해 아시아 리딩 그룹 도약"

〈신한금융그룹 회장〉 〈Global Markets & Securities〉

신한금융, GMS사업 비전 선포식
자산운용 전략 방향성 공감대 형성
그룹차원 투자·지원 아끼지 않을 것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웨이홀에서 열린 그룹 GMS(Global Markets & Securities) 사업부문의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웨이(Way)홀에서 그룹 GMS(Global Markets & Securities) 사업부문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GMS부문은 '아시아 리딩 트레이드 그룹 (Asia Leading Trading Group)'을 비전으로 선포했으며 '시장 변화에 대한 스마트한 대응', '그룹 협업 체계 강화 및 시너지 창출', '사업 비즈니스 라인업 확장'을 3대 중점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GMS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사에 참여해 비전과 자산운용 전략 방향

신한금융은 올해 초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 금투, 생명 3사의 고유자산 운용담당 조직을 통합한 매트릭스 형태의 GMS 부문을 출범시켰다.

GMS부문은 상반기 별도의 TF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그룹 통합 인력 운용 방안과 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로 이전을 통한 코-로케이션(Co-location) 작업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용병 회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그룹의 핵심사업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GMS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한 GMS가 'Asia Leading Trading Group'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1910

재무제표 확인시 주석 잘 살펴야

금융꿀팁 200선

재무제표는 간략한 금액 정보만 표시되어 있다. 관련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보충 정보를 알려주는 주석을 보면 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주석공시사항의 항목과 분량이 확대되면서 주석 정보가 더 중요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 이 같이 주석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 우발부채주석, 특수관계자 거래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를 비롯해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돼 있다.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결재무제표는 물론 과거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결재무제표로는 기업의 연결실체 내부거래와 외부 고객과의 거래에 따

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기업의 성장 이력과 비경상적 거래 효과 등을 파악하고, 향후 성장성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현금흐름표를 통해 현금의 주요 발생원천과 사용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이 주로 어디서 얼마나 유입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자금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영업이익만으로 수익성을 평가하지 말고, 현금흐름표에서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이해하면 수익성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기업이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과 현금창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황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및 약정 등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IBK기업은행, 中企대출 150조 돌파

8월까지 약 7.6조 순증 기록

IBK기업은행은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50조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150조2539억원이다.

국내 은행 중 중기대출 잔액이 150조원을 넘은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1961년 창립 이후 57년 만이다. 2006년에 50조원, 2012년에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창립 이후 단 한 번의 인수합병 없이 자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다른 은행들의 중기대출 확대와 우량 중소기업 유치 경쟁 속에서 달성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약 7조6000억원의 순증을 기록하며, 8월 말 기준 중기대출

점유비중은 원화대출 기준 22.6%다.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해내리대출', '온리원(only-one) 동반자 대출' 등을 출시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유일하게 영국 국제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은행'에 93위로 진입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기대출 잔액 150조원 달성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

우리은행 '세 친구' 출시 소상공인 전용 세무지원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의 세무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세무지원서비스인 '세(稅)친구'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친구는 모바일 세무업무 플랫폼 스타트업인 ㈜세친구가 개발한 서비스다.

세친구는 세무기장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경영지원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은행 통장 거래내역 조회 요약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예상 세액 확인 ▲매출·매입내역 확인 ▲세무기장 및 세무상담 ▲세금신고 등이다. /안상미 기자